

美, 영국에 핵무기 재배치 움직임

2007년 철거 이후 15년만에

“英尺 내 막사 신축 예산 책정”

반핵단체, 총리에 불허 요구

미국이 한때 핵무기를 보관했던 영국 공군기지에 막사 신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15년 만에 다시 영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내년 예산에 영국 서쪽에 있는 레이큰히스 영국 공군기지 내 144개 침상 규모의 막사 신축 비용으로 5천만달러(약 660억 원)를 편성했다.

미 공군은 ‘잠재적 보증 임무’로 인해 증원될 병력을 수용하기 위해 신축 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잠재적 보증 임무라는 용어가 통상 국방부 내에서는 핵무기 관리를 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레이큰히스 영국 공군기지 내 미군 막사는 내년

6월 시작돼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막사신축 예산 편성 사실을 처음 공개한 미국과 학자연맹(FAS) 매트 코다는 잠재적 보증 임무는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미 공군 내에서 흔히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레이큰히스 기지에 주둔한 제495 전투비행대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중발사 핵폭탄인 B61-12를 운용할 수 있는 F-35A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가디언이 소개했다.

코다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C-17A 군 수송기를 이용해 B61-12 핵폭탄을 유럽으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도 마무리된 상태라면서 이 모든 것이 미국 핵무기의 영국 재배치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FAS는 2023 국방예산에서 유럽 내 “특수 무기” 저장소 기반 시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명단에 영국이 추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FAS는 벨기에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100기 정도의 B61 중력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영국 내에서 핵무기를 철수시켰

지만, 관련 시설은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영국에 핵무기를 처음 배치한 것은 1954년으로 레이큰히스 기지에는 한때 110기의 공중발사 B61 핵무기가 배치됐었다.

만약 미국 핵무기가 또다시 영국에 배치된다면 관리권은 미군이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반핵 단체인 핵무기폐기캠페인(CND)은 미국 핵무기의 영국 배치 불허를 영국 총리에게 요구했다.

케이트 허드슨 CND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레이큰히스 기지가 또다시 미군의 핵심적인 핵무기 저장소가 될 것이라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가 배치되면 핵전쟁 시 핵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가 또다시 영국에 배치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2021년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 핵탄두 보유량을 260개로 4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여성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기리며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6개 지역 동시다발 드론 공격 받아

AP “개전 이래 최대 규모”

프리고진 장례식 직후 공격

30일 새벽(현지시간) 러시아가 대규모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 북서부 프스코프 지역의 공항에 공격용 드론이 날아와 군 수송기 4대가 파손됐다고 전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에서 600km 이상 떨어져 있다.

AP 통신도 러시아 당국자들을 인용해 러시아 6개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 등에 따르면 프스코프 지역 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으며 모스크바 지역을 비롯해 오를, 브란스크, 라잔, 칼루가 지역에서 드론이 잇따라 격추됐다. 프스코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뿐

만 아니라 오를이 위치한 오를로프, 프스코프, 브란스크, 칼루가, 라잔 지역에서 드론 공격이 보고됐다고 러시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하일 베데르니코프 프스코프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프스코프 공항에 드론 공격이 가해져 군이 퇴진 중”이라고 밝혔다.

프스코프 공항은 국제공항으로, 민군 공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드론 공격으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러시아 공군의 주력 수송기인 일류신 II-76 4대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는 일류신 수송기 중 2대는 아예 폭발해 불길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이번 드론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장례식 몇시간 뒤에 드론 공격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으며 AP 통신은 18개월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영토에 대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중국 투자자, 자국 리스크 피해 해외 펀드 몰려

올들어 해외 투자 펀드 38개 출시

중국 투자자들이 자국 증시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하락 등에 실망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해외 자산 투자상품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자금의 해외투자 통로 가운데 하나인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 제도에 따라 발행된 상장지수펀드(ETF)와 뮤추얼펀드에 개인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QDII 상품 투자자들이 최근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홍콩 증시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 심지어 신흥 시장인 베트남과 인도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

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지난해 22%나 폭락한 후 올해에도 2% 정도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낸 데다 위안화도 올해 미국 달러 대비 5% 넘게 하락했다.

이에 비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4.3%와 약 30% 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모두 38개의 QDII 펀드가 출시돼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 출시된 펀드 31개를 넘어섰다.

또 1655억 달러(약 218조 원) 규모의 전체 QDII 쿼터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자국 대출기관에 역외 채권을 통한 자금 유출을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허리케인 ‘이달리아’ 파도 앞 사진 찍는 관광객들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남단 지점 방문객들이 29일(현지시간) 허리케인 ‘이달리아’의 영향으로 강해진 파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이달리아는 오는 30일 폭풍해일과 바람을 동반한 3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채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美백악관, 北김정은 ‘깡패우두머리’ 비난에 “대화채널 열려있다”

프리고진 사망 배후로 푸틴 지목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북한 측에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 발언에 대해 특별하게 말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수차 말한 대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면서 “우리는 (대화) 열려 있다”고 밝히며 북한에 군사적 도발이나 긴장을 조성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어 백악관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배후로 재차 지목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프리고진의 사망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당국의) 평가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가 아닌 일은

별로 없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면서 “크렘린은 적을 죽인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도한 정책을 벌이는 방식에 좌절된 군 지도자(warlord)이자 냉혈한 킬러-살인자인 자신(프리고진)이 러시아의 실패한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프리고진의 모스크바 진격을 거론하면서 “(푸틴과) 거래(deal)를 하고 나서 한두 달 뒤 그는 죽었다”고 상기시켰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